

꿈속서 폭포와 노니는 천혜(天惠)의 절경 희망사



조선시대 대학자인 서거정이 극찬한 28m 희망폭포는 내륙지방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도 교실을 하고 있는 희망사내 소백산 산야초연구회 다실



희망폭포 위에 위치한 희망사 경내는 적막감이 흐른다.

폭포가 아름다운 사찰 2 - 풍기 희망사

소백산 오르는 길에 자리한 희망폭포는 소백산 맥 최고 봉우리인 비로봉(1,439m)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높이 28m로 내륙지방서 가장 큰 폭포다. 특히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폭포에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폭포를 위로 하고 한구비 오른쪽 고요한 정적 속에 희망사가 자리잡고 있다. 일찍이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꿈속에서 노니는 천혜의 곳(天惠夢遊處)'이라고 격찬한 희망폭포를 품은 희망계곡, 소백산 영봉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한층 운치를 더해주는 희망계곡은 풍기로부터 죽령에 이르러 희망사로 오르는 절경들을 품은 계곡이다. 영주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옛 죽령길을 따라 10여 분쯤이면 희망계곡이 시작된다. 소백산 관리사무소를 지나 계곡 쪽으로 접어들면 울창한 수림, 큼직한 돌과 바위 틈새로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가 순례객을 반긴다. 곳곳에 작은 폭포를 만나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뽀뽀한 숲속길을 잠시 걷노라면 땅이 갈라질 듯 굉음을 내는 계곡 물소리를 듣게 된다.

얼마 후 눈앞으로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나타나는데 다리 위에 올라서면 28여 미터 높이서 수직하강 하는 폭포를 보게 된다. 바로 희망 폭포다. 희망계곡 명소 중 하나로 해발 700m에 위치한 희망폭포는 소백산 연화봉 밑 깊은 골짜기서 발원해 몇 천 구비를 돌고 돌아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마치 소백산 영기를 뿜어내는 듯 절벽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수는 가히 계곡의 으뜸이라 할만하다. 폭포 큰 물줄기 아래로도 또 작은 폭포가 이단으로 떨어져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는데 희망폭포는 경상도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폭포로 손꼽힌다. 소백산 제 1경이라 꼽히는 희망폭포를 왼쪽으로

끼고 계곡 옆 오솔길을 오르면 뽀뽀한 숲속 깊숙이 자리한 희망사가 있다. 절 아래 천지를 뒤흔들 것 같은 폭포의 굉음과는 정반대로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희망사. 이 절은 선덕여왕 12년(643)에 두운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단아한 모습으로 걸터앉았다.

사찰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느 날 산길을 가던 두운 조사는 사람을 잡아먹다 비녀가 목에 걸려 신음하던 호랑이를 발견했다. 두운 조사가 그 비녀를 빼내 호랑이를 살려 주었다. 그 후 호랑이는 두운 조사의 은혜를 갚고자 어느 양가집 규수를 몰아다 주었는데, 그 규수는 바로 경주호장(慶州戶長)의 무남독녀였다. 경주호장은 딸을 살려 준 두운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절을 지

조선시대 서거정 희망폭포 극찬 희망사, 두운조사 설화 전해져 사찰서 <훈민정음언해본> 판본 발견

었다. 절 이름 역시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다는 뜻의 '희(喜)'와 두운조사 참선방이란 것을 상징하는 '방(方)'을 써서 희망사(喜方寺)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당시, 경주호장은 이것으로도 은혜에 대한 보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죽령고개 아래 마을 계곡에 무쇠다리를 놓아 주었는데, 지금도 고개 밑의 마을을 수철동(水鐵洞)이라 부른다. 한편 희망사는 1568년(선조 1)에 새긴 <월인석보> 1·2권의 판목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6.25전란 때 훈민정음 원판, 월인석보 판목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소실되기 전 찍어둔 <훈민정음 언해본> 판본 한 권이 화재더미 속에서 발견돼 훈민정음 창제 내력을 밝혀 주고 있다. 지

금의 건물은 1953년에 중건된 것으로 이곳에는 영조 18년에 제작된 동종(지방 유형문화재 제226호)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희방계곡을 들어서면서 세속의 시름은 사라지고 희망폭포의 시원한 물줄기 앞에서 세상의 온갖 소음은 그 소리를 잊어버리며 고즈넉한 고찰 희망사에서 동종의 은은한 소리 울려 퍼지면 그곳이 바로 '꿈속에서 노니는 천혜(天惠)의 절경'이다.

풍기 희망사=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동종...조선 후기 범종의 혼합 형식



이 동종은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1742년(영조 18)에 주조된 충청북도 단양 대흥사의 종이다. 승장인 해철(海哲)과 조부(趙符) 등이 중간 크기의 종으로 만들었다.

크기는 높이 88cm, 용뉴 18cm, 밑지름 56.5cm이다. 모양은 쌍룡으로 이루어진 용뉴 아래 포탄형의 종신(鐘身)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외형선은 불룩한 종경(鐘頂)에서 구연부(口緣部)를 향해 벌어지면서 내려오는 형태를 하고 있다. 종신 윗부분에는 등근 모양의 범자(梵字)로 된 상대(上帶) 아래 연화당초문의 유곽대(乳廓帶)와 연화무늬의 종유(鐘乳)로 구성된 4개의 유곽과 연화가지지를 쥐고 있는 4구의 보살 입상이 교대로 그려져 있다. 이 동종은 비교적 안정감이 있고 조선 후기 범종의 한 유형인 혼합형식의 종으로, 전통적인 수법에 외래 요소인 쌍룡의 용뉴와 피장식이 합쳐져 있다. 대웅전 맨 왼쪽 구석에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일부러 찾아보자.

주변보기

▲찾아가는 길

-승용차

서울 - 경부(중부)고속도로 ~ 신갈(호평) IC ~ 영동고속도로 ~ 남원주 IC ~ 중앙고속도로 ~ 서제천 IC ~ 단양 ~ 풍기(희방) 【소요시간 : 서울에서 풍기까지 3시간 30분】

-기차

중앙선 하행 : 청량리 ~ 단양 ~ 풍기(1일 10회)

-버스

서울 ~ 영주 : 동서울터미널(1일 21회)

-시내버스

풍기 → 희망사 : 소요시간 20분(1일 13회)

영주 → 희망사 : 소요시간 40분 (1일 13회)

▲맛집

약선당(054-638-2728)은 약선정식과 인삼정식이 유명하다. '약선' (藥膳)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요리연구가 박순희씨가 개발한 정식은 조미료 대신 효소를 양념으로 사용하고 영주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사용해 맛이 담백하다. 특히 주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요리가 매일 바뀌고 모든 음식에는 인삼을 갈아 넣는다. 풍기항방삼계탕(054-638-2600)은 감초·당귀·하수오 등 13가지의 약재를 우려낸 물을 육수로 사용해 독특한 맛을 낸다. 25년째 삼계탕을



우리해운 주인장 오경옥씨는 "삼계탕 한 그릇을 먹으면 십전대보탕 한 대접을 먹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순흥전통목집(054-634-4614)은 목조밥이 맛있고, 정도너츠(054-636-0067)는 생강도너츠가 유명하다.

▲숙박

선비촌(054-638-7114)은 전통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숙박 외에 고택관람·전통예절·한문·다례·전통놀이·전통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저자거리에서는 토속음식점, 공방, 특산물점, 전통민속놀이 공연장과 체험장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 선비문화수련원(054-631-9888), 물도리에술촌(054-633-8111), 영주청소년수련관(054-633-0924), 옥녀봉자연휴양림(054-636-5928), 풍기인삼관광호텔(054-637-8800) 등.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검색

주소_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055)974-0033, 055)973-4006
상암 및 예약_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3×6식물성사군자

3×6사군자 (7.4×14.5cm)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멜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멜로우/살구/그린/개나리(7.4×29cm)

한복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둔타래전사자/원기동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악취아광연꽃양초/악취1호예술연꽃양초/아광 연꽃초